

# 주간기도정보

2023. 12. 26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 통계로 본 2024 한국교회 목회 전망... ‘선택과 집중’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 2024 문화선교트렌드 포럼에서 발제



지용근 목사(목회데이터연구소)가 19일, 필름포럼에서 열린 2024년을 조망하는 문화선교포럼에서 2023년의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 교계와 목회’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지 목사가 통계조사를 통해 지적한 엔데믹 시기를 지나는 한국교회의 주요 현상으로는 ‘가파른 탈종교화’, ‘가난한 성도의 확대’, ‘30·40층의 이탈’과 이에 따른 이들의 어린 자녀들의 이탈로 인한 ‘교회학교 감소’ 등이 있다.

지 목사는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지면서 변화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여전히 위계질서, 기존의 체계를 바꾸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별로 없었다. 현실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때문에 갈등을 다루고 싶어 하지만, 오랜 전통과 습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며 “사회는 변화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여전히 사회의 변화나 다음세대 이슈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데, 요즘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기업 문화가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30·40층이 기업에서는 오히려 공정과 수평적 관계를 경험하다가 오히려 교회에 와서 수직적 위계질서에 숨막혀 한다”고 했다.

이어 “출생률 감소로 인해 아이들의 감소세가 있는 것이 맞지만, 그에 비해 교회학교 비율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부모의 신앙이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교회의 특징인 ‘가족 종교화’ 현상으로, 30·40층의 이탈로 인해 그의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 목사는 2024년을 조망하며 “수평 이동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를 지나며 교세가 줄어들던 한국교회의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심방, 예배, 상담, 전도, 말씀 등을 비롯해 목회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앞으로는 ‘소그룹 사역’이 성숙하고 활발하게 이뤄지는 교회, 그리고 30·40층 사역에 중점을 두는 교회, 또한 고령화된 기성세대를 잘 이해하는 교회 등으로 수평 이동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세대를 외치지만 막상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교회와 지금까지 이어온 교회의 체제와 질서 방식을 고수하는 교회의 교인들은 앞서 언급한 교회로 수평 이동하며 빠져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 목사는 ‘하락하는 교세의 대안’으로 ‘선택과 집중’을 제안하며 “교세가 하락·축소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 교회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나, 한 가지 일이라도 족하다’고 하신 말이 있다”며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무리하게 다루기보다는 교인들이 딱 한 가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며, 이것을 마음에 새겨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출처: 기독교일보 종합).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0:41-42)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립보서 2:5-8)

하나님, 교세가 하락하고 축소되면서 교인들의 수평 이동이 일어나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변화해야 하는지 모른 채 머뭇거리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프로그램과 전통을 유지하느라 분주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작정하고 본질에 주목하게 하소서. 목회자들이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려 자기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 위에 참된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은 부흥을 주사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세상을 이기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소서.

## 2. 북한을 위한 기도

###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한국순교자의소리 ‘북한 성도들 성경 지식 늘어가고 있다’

북한 주민들, 영화 속 기도 장면 보고 관심 갖다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기도



적인 러시아 영화를 보고 기독교인이 된 북한 사

북한 내부 주민과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북한어 성경책 등을 배포하고 있는 한국 순교자의소리(VOM)가 최근 성경을 받았던 북한 지하교인들의 감사 편지를 통해 영화를 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과 말씀에 반응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밝혔다.

VOM에 따르면, 북한에 사는 한 가족은 러시아 영화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교회에 가는 장면을 본 뒤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던 중에 그 가족 중 한 명이 중국에 갔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다. 그 북한 사람은 영화

에서 나온 것과 같은 교회에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고, 그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와 사도신경과 용서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북한 지하교인 A 씨는 편지에서 “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쓰러져 가는 우리 민족들에게 하루빨리 하나님 사랑이 널리 전파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전했다.

북한 지하교인 B 씨는 “우리는 인간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은 죄 덩어리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음으로 모든 일이 잘되어간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실감합니다”라고 전했다.

또 북한 지하교인 C 씨는 “주님께서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았지만,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몰라서 죽어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이 편지들은 북한 지하교인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성경과 성경적인 주제에 관한 지식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성경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는 독립적인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VOM은 북한 지하교인들이 보낸 편지를 외부 기독교인들에게 공개하며 “바야흐로 지금은 북한에 복음을 전할 때다. 성경은 오늘날 북한 내부로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말 그대로 역사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변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누가복음 24:45-48)**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2:9-10)**

하나님, 북한과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이 배포되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평생 주체사상 속에서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들려져 영혼의 참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해주소서. 삼엄한 감시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으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매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북한에 계속해서 성경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북한을 넘어 모든 열방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유아용 애니메이션서 동성 커플 묘사  
가치관 정립 시기, 정체성 혼란 야기



“나는 엄마, 그리고 또 한 명의 엄마와 함께 살아요. 한 엄마는 의사고 다른 엄마는 스파게티를 요리해요.”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영국의 유아용 애니메이션 ‘페파피그’(Peppa Pig)에 동성 커플 캐릭터가 등장했다.

페파피그는 180개국에 진출한 애니메이션으로, 분홍 돼지 페파와 그 가족의 일상을 그린다. 제작된 지 18년 만에 처음으로 동성애자 캐릭터가 묘사됐는데, “유아용 방송은 유아용 방송답게 놔두라”는 등 비판이 잇따랐다.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에 동성 커플을 등장시킨 건 ‘페파피그’가 처음은 아니다. ‘내 친구 아서’(Arther), ‘어드벤처 타임’(Adventure Time)과 ‘스티븐 유니버스’(Steven Universe)도 동성 커플을 그린 바 있다. 과거 금기시됐던 ‘동성애 코드’가 아동·청소년 콘텐츠까지 스며든 것.

한 학부모는 “배경지식 없이 그냥 아이에게 만화를 틀어줬다가 깜짝 놀랐다”며 “2-4세용 만화에 동성애 설정이 나오더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얼 보여주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학부모 단체들은 아이들이 시청하는 콘텐츠까지 동성애가 파고든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기에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탁인경 옴은학부모연합 대표는 “요즘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동성애 코드’는 통제력이 약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을 자극하고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어른조차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노출되면 휩쓸리기 쉬운데, 아이들은 더하지 않겠나. 동성애 코드가 아이들에게까지 퍼진 현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청소년상담원이 ‘동성애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따라 하고 싶거나 호의적인 느낌이 든다”고 답한 청소년이 32.7%나 됐다. 청소년 3명 중 1명이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셈이다.

미디어가 아동·청소년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는 청소년 대상 케이블 음악방송 프로그램(랩 경연)에서 자해를 다룬 콘텐츠가 방영된 후 자해로 인한 청소년들의 응급실 방문이 늘었다고 발표했다.

김효원 서울아산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미디어 속 콘텐츠는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정보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베드로후서 3:17-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로마서 1:18,26-27)**

하나님, 동성애 콘텐츠를 통해 다음세대에게 잘못된 성 개념과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심고 불의로 진리를 거슬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막아 주십시오. 치열한 세계관 전쟁 가운데서 교회가 자녀들에게 힘써 진리를 가르치며 무법한 자들의 미혹 앞에 거룩한 진리를 분별하여 따르는 세대를 양육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독교 콘텐츠가 풍성히 개발되도록 도와주셔서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소서. 경건하지 않은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택한 다음세대가 일어나 진리를 위해 싸우며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참 기쁨을 세상에 전하길 기도합니다.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